



봉우컬럼

합심기도의 위력

지난 목요일, 강반석 목사가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전 교역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강반석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고. 모든 교역자들이 기도했으리라. 다음날, 그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다. 하룻밤 사이에 놀랄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할렐루야!

1년 전쯤에 어느 의사가 쓰러졌다. 정말 교회에 헌신하는 분이다. 나는 그때도 전 교역자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문자를 보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우리 기도에 그는 살아났고,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시대 목사 말에 의하면, 그 의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 주님 앞에 가더라. 그런데 주님이 “저렇게 모든 주의 종들이 기도하니 다시 돌아가거라.” 하셨다는 것이다.

합심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19~20).

수학적인 계산으로 1+1=2이다. 그런데 기도의 위력은 이 계산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 이상이다. 내가 기도의 동역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가정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나 혼자 큰 항아리의 아구까지 물을 채우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힘도 든다. 그러나 여러 명이 물을 나르면 금방 찬다. 시너지 효과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더니 천사가 베드로를 도와 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모든 자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뢰를 발하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요즘 예배시간마다 예정된 집회를 광고한다. 이는 집회를 위해, 그리고 나와 선교일행을 위해 합심기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위력은 더욱 크기 때문이다.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무려 4년 만의 부활절 성찬 예배였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감격의 순간이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곧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단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행1:8)이요, 성

교회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목사님은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다시 세계 선교의 길로 나서려 하시는 것이다. 70이 넘어 80을 바라보는 연세에, 기성교회 같으면 벌써 은퇴하여 쉬실 연세에 다시 세계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길을 떠나신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전도하라’, 강조하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고전4:2). 지난 수요일, 무려 1,600여 명이 장로, 피택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다했느냐가 그날에 불에 타지 않을 공력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2023 부활주일예배(4월 9일,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

찬에 참여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 교회소개에 잘 나와있듯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선교 최우선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여전히 성전도 없이 체육관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성령의 역사와 선교를 가장 중시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멋진 성전을 가졌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면,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 구제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 “가지 못하면 보내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질을 드려 교회를 세우고, 신학생이나 잘 키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좌우간 사도 바울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주 앞에 서는 날, 당당히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나도 항상 그날을 생각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주 앞에 서야 하고, 여러분 모두도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3:13~15). 목사님이 70이 넘는 연세에도 그렇게 몸을 불사르시는 것은 당신이 받을 그 날의 상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이, 성도들이 제발 당신을 본받아 주 앞에 서는 날, 모두가 ‘잘하였다’ 칭찬받고, 주 앞에서 서로를 자랑하며 기쁨과 환희의 파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때문이다.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맡겨진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

한은택 목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25~27)



예수님의 부활 첫 메시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15:19). 사두개인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입니다(고전15:17).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니까요(롬6:8).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그리고 부활 후 첫 메시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하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하셨습니다. 이는 다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시다

‘복음(福音)’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것이, 병든 자가 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괴로운 자가 행복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간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내세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세의 부활, 종말론적 부활만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야 그 집에 도착하십니다. 오매불망 예수님만 기다리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 원망 섞인 말투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니이다”(요11:24)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세의 부활을 의미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부활만을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요11:33). 부활을 내세의 것으로 한정 짓는 자들에게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

이 내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세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의 부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현세의 부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경이 눈을 뗐지요? 귀머거리가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지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 자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부활이 일어나야 마땅함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초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용접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병들거나 좌절해 누워있는 사람들 머리에 대니 다 별뿔뿔 일어나며 살아나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수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기업이 살아나

고, 얽힌 것이 풀리는 것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부활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삶이 부활해야 맞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하고, 당연히 망했던 것이 일어나야 하고, 당연히 묶였던 것이 풀려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통분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의 부활이 없다면 완전한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끼니

도 없는 자에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한다면 그의 반응이 어떨까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가 병들어 골골거리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너나 잘 믿고 나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세의 부활이 이뤄지면 “나 보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고 내세의 부활이 있음도 믿어라.” 해서 주님의 부활 후 첫 메시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매오가 눈을 뜬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가 목이 터져라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사지가 마비되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이기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러 세계를 누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부활을 보고 내세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이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에 앞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냄으로 현세의 부활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16:20)는 말씀대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목회자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내어 보내시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10:7~8)고 당부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활을 눈으로 보게 함으로 가능합니다. 병든 가정, 병든 기업을 다시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될 때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부활절에 우리는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며,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부활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육에 부활이 이뤄질 때 이를 통해 세계만방에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전15:57~58).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직분자의 자세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책이나 군대의 계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장로 · 권사 · 집사와 같은 직분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어깨싸움하며 주도권 다툼을 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은 말만 무성하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그 어떤 단체라도 일꾼이 필요하지 말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성경에서 충성이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과 정직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조차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충성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은 직분대로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

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의욕을 상실하여 일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도 일을 할 사람은 많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 주심에 감사하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은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주인의 식을 가진 자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인데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맡은 일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평신도 때는 굶은일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서는 이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하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복 받은 자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신앙논객 ::

꽃보다 나무

지난 몇 주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거리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저 꽃들 기껏해야 2주면 다 저서 땅에 떨어지고, 청소부 아저씨들만 괴롭게 될 텐데...’

나이를 먹으면서 감수성이 예마른 걸까 싶겠지만 내 성격은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다. 여행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수려한 경치를 봐도 별 감흥이 없고, 분위기나 무드 같은 것도 잡을 줄 모르고. 꽃이야 시들고 저버리면 쓰레기 아닌가. 그러다 꽃들 사이에 있는 나뭇가지를 보았다. 꽃은 길어야 한 달이면 진다. 잎사귀도 아름답지만 가을 한 철이면 이름 그대로 떨어지는 낙엽이 된다. 그러나 나무는 세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심겨 있다. 물론 겨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보이지만, 수많은 꽃이 피고 지도록, 또 해마다 나뭇잎이 나고 또 낙엽 되어 떨어지도록 나무는 항상 변함이 없다.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집회나 행사같이 뭐 있을 때만 반짝하는 신앙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전히 자신이 심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 말이다.

미국의 동화 작가 셸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무는 소년이 노인이 될 때까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소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었다. 소년일 때는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며 놀게 해주고, 자라는 사과 열매를 모아다가 팔아 돈을 벌게 해주고, 가지를 베어서 신혼집도 만들게 해주고, 얼마 후에는 몸통으로 배를 만들어 훌쩍 떠날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루터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총회장 목사님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항구여일(恒久如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잠시 잠깐 화려하게 피었다 지는 꽃보다는 북풍한설에도 요동하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고대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자네를 믿네

인천교회 부지를 찾아낸 사람들은 서울 교회의 국길현 장로와 염상섭 장로다. 꿈에 국 장로가 세 장의 카드를 꺼내면서 나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부지 세 곳 중에 하나를 택한 곳이 지금의 인천교회 터다.

이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의 일부가 모자랐다. 그때 염상섭 장로가 공장 이전을 위해 가지고 있던 돈을 선뜻 빌려줬다. 나는 그런 그에게 “자네가 가서 계약하게.”라며 거액의 돈을 건넸다. 그랬더니 한 덩치 하는 그가 내 앞에 무릎을 딱 꿇고는,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믿어주실 줄 몰랐습니다.” 했다. “공장에 들어갈 돈까지 빌려줬는데, 내가 자네를 안 믿는다면 누굴 믿겠나?”라고 말해줬다. 그는 성전건축위원장이 되어 자신의 사업은 뒤로한 채 인천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이 있는지라 베드로는 당연히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답한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믿어주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180도 변했다. 자신을 믿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나도 내가 주님을 믿듯, 주님도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이 목숨을 내놓고 죽도록 충성한다.

맞다. 신뢰보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일을 맡겼으면 믿어줘라. 그것이 최고의 예우이다.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초행길

얼마 전 남원에 장례식 하관에배를 참석하러 갔다. 남원시내에 도착하여 점심 식사 후 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을 틀었다. 돌아가는 큰 도로 길도 있었지만, 조금 일찍 도착하려고 최단거리로 검색했다. 그 길은 산으로 올라가는 일차선 비포장 도로였다. 이 길이 아니다 싶었지만 일단 진입하고 나니 되돌릴 여유 공간조차 없어서 그냥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갈수록 차가 다니기 힘든 좁은 산길만 계속 나타났다. 문제는 높은 산 꼭대기를 넘어서 내려가는 길이었다. 오른쪽으로는 깎아지른 절벽같은 낭떠러지였다. 오금이 저려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지 연신 물었다. 얼마나 긴장되는 시간이었는지, 그럼에도 오직 믿는 것은 내비게이션 하나뿐이었다. 여정은 힘들었지만 끝까지 믿고 따라갔더니 결국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이런 초행길들이 참 많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때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 하나만

을 붙잡고 가야하는 상황들이 많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 초행길이라 많이 두려웠을 텐데 그의 애굽으로의 피난길까지도 하나님은 동행하셨다.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다. 위기에 서도 보호하시는 확실한 동행자이셨다. 산을 넘는 내내 나에게 내비게이션은 확실한 동행자 역할을 해주었다. 모든 길을 입체적으로 구석구석 잘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지구 밖에서 보내주는 다른 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말씀이라는 정보도 온 우주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내주신 정확 무오한 이생과 내생의 정보이다. 믿고 따라갈 때 천국까지 가는 길이 열려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죽음을 묵상했다. 죽음은 누구나 가야하는 초행길이다. 막막하지만 확실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위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셔서 천국까지 동행하신단다. 초행길이어도 초행길이 아닌 삶이다. 이 얼마나 든든한 동행길인지, 찬양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다.

송치화 목사

:: 간중 ::

:: 참된 깨달음 ::

총회장 목사님 만나서 팔자 고쳤습니다



저는 아산예수중심교회에 다니는 이순금 권사입니다.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작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집 옆에 있는 감리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였습니다. 기도나 상급에 대한 믿음도 없이 열심히 예배만 참석하였습니다. 남편이 셋째아들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서울의 잠실 학생체육관 금요철야집회에 참석하여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로 삼 남매를 주셨는데 감리교회 권사인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따라나서지 못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 아산예수중심교회를

세울 때 작으나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산예수중심교회의 박인덕 담임목사님은 영과 육의 양식으로 성도를 잘 먹이시려고 주일마다 잔치를 합니다. 배방에서 장금이술밥장식 식당을 운영하는 전경숙 집사님과 조별로 조금씩 지원하면 사모님과 박정희 집사가 봉사를 해서 맛있는 뷔페 음식을 제공합니다. 주일에 영과 육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는 참 좋은 아산예수중심교회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니 병원에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전무후무한 건강 주셔서 일평생 병원과 약국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아산예수중심교회의 피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지금은 새벽마다 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며 총회장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잘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고요하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시고, 남편이 저보다 먼저 주님께 가게 해주시든지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들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파서 죽게 되면 준비하는 기간만 아프게 해주시고, 죽는 날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아이들 앞에 준비를 마치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중고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 새 차가 타고 싶어서 하나님께 ‘죽기 전에 새 차 좀 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전기차를 주셨

습니다. 더하여 생각지도 않던 땅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중심교회에 오기 전에는 작심삼일 결심만 하는 바보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도전하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 74세에 도전하여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가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현장학습으로 청와대도 가고, 남산타워도 가고, 안산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가서 백일섭 씨와 박정수 씨가 출연하는 장수상회 연극도 보았습니다. 선생님과 교우들과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마냥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저는 걸음을 씩씩하게 잘 걷습니다. 예술의 전당 주위를 산책하는 중에 저한테 뭘 먹어서 그렇게 잘 걷느냐고 교우들이 묻길래 신약과 구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말인가 하고 쳐다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된다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자 애쓰면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시와 독후감을 쓰고 수필도 써서 수상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제가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야말로 팔자 고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산예수중심교회 이순금 권사

미디어와 신앙

정치, 경제, 종교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유튜브 등의 미디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회 수가 곧 돈과 연결되다 보니 자극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비판적인 논조에 동화될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고, 곧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럴 듯해서 빠져들게 되고, 확신이 믿음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신념’과 ‘신앙’으로 구분됩니다. 신념은 ‘믿을 신(信)’에 ‘생각할 염(念)’을 쓰는데, 내가 믿는 것대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신념은 가치, 사상, 제도 등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신앙은 ‘믿을 신(信)’에 ‘우러를 앙(仰)’을 쓰는데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신념과 신앙이 충돌할 때 3가지 정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신념대로 살아가려 할 때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해서 신념에서 신앙으로 회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둘째,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념대로 생각하고 말하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아 결국 천국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마귀가 사람을 속여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합리화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격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교만과 위선이 늘어납니다. 또한 신념이 강할수록 성령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줄어듭니다. 세상의 미디어는 신앙보다는 신념을 강하게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진리처럼 포장해서 유혹합니다. 신념을 버리고 성경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롬2:7-8).

송명국 집사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533-9191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선택과 집중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지루한 이동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디지털 기기는 우리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삶에 여유가 생겼을까요? 오히려 분주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꾸만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계속해서 바빠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이 낭비됩니다. 내 삶에 자리 잡은 분주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올해 성경을 최대한 많이 읽기로 다짐했습니다. 왕복 2시간 정도 되는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핸드폰으로 말씀을 봅니다. 이때 알람이 떠서 잠깐 확인하면 15분이 훌쩍 지나가고, SNS에 들어가더라도 하면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수많은 유혹을 버리고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결심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성경 어플을 열면 ‘방해금지 모드’가 자동으로 켜지도록 설정했습니다. 핸드폰에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하면 모든 알람이 차단됩니다. 그 뒤로는 말씀에 집중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세상은 멀티태스킹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마치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최

근 한 연구에서 멀티태스킹은 단기 기억력과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치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마르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부수적인 것은 버리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떠밀려 나도 모르게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벌써 2023년도 1/4이 지났습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올해는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과 거리를 두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 다짐해봅니다.

전소희